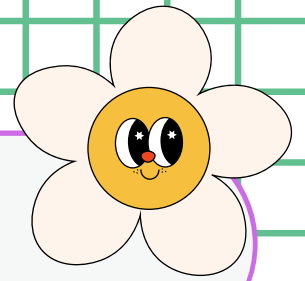




APRIL 2024



뉴저지 초대교회

씨앗 순예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연결하는 신앙적 소통

광야 한 가운데 견고히 서기

히브리서 12:2, 골로새서 4:2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1)

FAMILY ACTIVITY "THE POWER OF ROOT"

준비물: 종이컵 또는 아무컵, 쌀, 젓가락, 손가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인 포스트 잇 붙인), 나무모양 템플릿, 종이부채 또는 헤어드라이어 (또는 바람을 만들수 있는 아무것), 풀 또는 스카치테이프

1. 나무 모양 템플릿 2개를 각 팀에게 나누어줍니다. 각 나무위에 각자가 겪는 크고 작은 고난을 나누어보고 적어보게 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고난이 크게 와 닿지 않는다면 죄의 유혹등을 적어도 좋습니다.
2. 나무를 잘라서 젓가락위에 스카치테이프이라 풀로 붙여줍니다.
3. 쌀이 담긴 컵 두개를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완성된 나무 두개를 각각 종이컵 두개안에 꽂아줍니다.
4. 이때, 나무 하나는 손가락을 이용해 망치질 하듯이 쌀 깊숙히 들어갈수 있도록 박아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 하며, 우리가 마주치는 고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깊숙히 우리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고 이야기 합니다. 나머지 나무 하나는 손으로 대충 가볍게 꽂아줍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5. 종이 부채 또는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나무 위에 붙여주며, 바람은 우리에게 때때로 불어오는 또다른 고난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무가 쉽게 무너지는지 관찰합니다.

연결:우리 모두는 어려운 일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린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삶을 적어내려가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 믿음의 주인 (author)되십니다. 우리들의 매일 매일 삶속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 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일들을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 그분의 약속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폴 밀러와 그의 아내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책의 저자 입니다) 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는 발달장애가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아기는 숨을 잘 쉬지 못했고 폐가 약했으며 근육도 약했습니다. 의사들의 실수로 인해 아이가 그렇게 되었을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기에 폴과 그 아내는 마음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내가 임신했을때 아기가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기에 이러한 상황들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 삶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기 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은 그들 삶에서 딸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셨고, 비로소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1) 우리에게는 모두 '광야'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아주 고통스럽고 슬프습니다. 끝이 없는 터널을 걷는것과도 같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오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 2)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됩니다.
- 3) 폴과 그의 아내는 그들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World Harvest Mission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발달장애로 많은 성경교재를 출판할 수 있었고 아내와 딸이 특수교사가 되어 많은 이들을 섬겼습니다. 폴과 그의 아내에게 그들의 딸이 가져다 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열매가 값지기도 했지만 폴은 자신의 교만하고 고집했던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가운데 하나씩 이겨내고 극복해나갈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게 내리면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견고히 서는것처럼 우리의 믿음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삶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풍파속에서도 우리는 단단하고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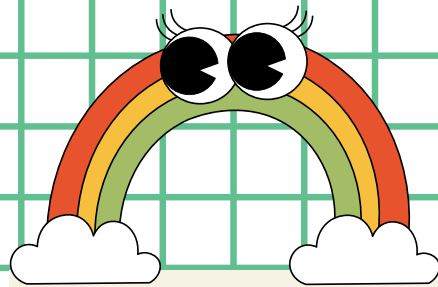
TALK



1. 내 삶에 '광야'같이 느껴졌던 경험들이 있다면 나누어보세요
2. 오늘 배운것을 한문장으로 표현해보세요
3. 각자가 겪고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보고 그것을 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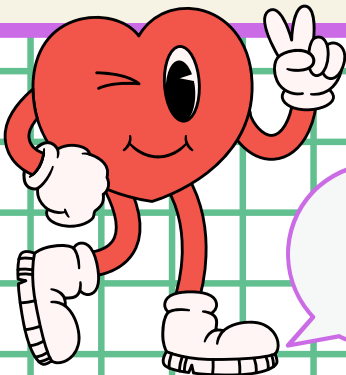
CONCLUSION

우리들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주기도 하죠. 어떨때 이것은 죄의 유혹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때때로 삶의 고난은 죄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심으시고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또다른 풍파나 어려움이 닥쳤을때 우리가 내린 뿌리는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지 않았을것이며 그렇게 단단한 뿌리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은 사실 아주 소중한 시간 이랍니다.



ENDING PRAYER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향해 두신 멋진 삶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씨앗순예배 교육모임은 매달 마지막 주일 3부예배 후 (1-1:30PM) 교육관 유년부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간단한 다과가 제공됩니다. 모든 교제와 동영상은 초대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